

# 韓·蘇 經濟協力を 診斷한다

李 昌 在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委員·經博〉

## 1. 韓蘇經協의 推進經緯

1988년 9월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행한 연설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한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이래 韓蘇兩國間的 經濟協力は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1989년 4월 蘇聯聯邦商工會議所 서울사무소 및 大韓貿易振興公社의 모스크바사무소가 개설됨에 따라 양국간 교역은 종래의 간접무역에서 벗어나 직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외환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은 소련 對外經濟銀行이나 소련이 출자한 西方의 現地法人 銀行과 換去來(Bank Corres) 契約을 체결하여 代金の 직접 결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양국간 직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1990년 1월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대우, 럭키금성 등 4개 종합상사가 支社設置許可를 받았고 선경, 코오롱, 쌍용이 모스크바에 支社를 설치했다. 소련측도 1990년 8월 리첸스인토르그(Licensintorg)가 서울지사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스탠코임포트(Stankoimport) 등이 서울사무소 개설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1990년 3월 大韓航空과 Aeroflot社가 모스크바와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한편 1989년 12월 한국과 소련은 領事處를 상호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작년 6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韓蘇頂上會談에 이어 9월 30일 한소 양국간 國交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12월 노대통령의 訪蘇時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증과세방지협

정, 과학기술협정 등이 체결되었고 금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韓蘇政府代表者會談에서는 어업협정이 가시명되었으며 30억 달러 규모의 經協資金을 3년에 걸쳐 소련에 제공키로 합의하였다.

## 2. 韓蘇經協 現況

한소경제협력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양국간 교역 규모의 증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89년 한소간 무역액은 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990년 대소무역액은 8억8천9백만 달러로 1989년의 1.5배의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의 對蘇輸出品目은 종전에는 섬유, 의류와 가전제품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88년말 이후 선박과 철강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1989년 下半期부터 소련의 消費財 긴급수입으로 비누, 치약 등 생필품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퍼스

### 對蘇交易推移

(單位 : 100만 달러)

	1986	1987	1988	1989	1990
對蘇交易額	133	200 (50.4)	290 (45.0)	600 (106.9)	889 (48.2)
對蘇輸出	65	67 (3.1)	112 (67.2)	208 (85.7)	519 (149.5)
對蘇輸入	68	139 (95.6)	178 (33.9)	392 (120.2)	370 (-5.6)
貿易收支	-3	-66	-66	-184	149

註 :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널 컴퓨터, 자동차 등도 새로이 수출되기 시작하여 輸出品目이 다양화되었고 1990년 주요 對蘇 수출 품은 선박, VTR, 섬유제품, 전동기, 냉연강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소련으로부터 수산물, 석탄, 원목, 모피, 원면 등 1차 산품과 선철, 고철, 니켈괴, 펄프 등 原資材를 주로 輸入하여 왔는데 1989년부터는 비료, 무기화학물, 섬유사 및 직물, 고무제품, 공작기계 등 공업제품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은 다소 감소했는데 선철, 유연탄, 알루미늄, 석유, 냉동어류 등이 주요 수입품목을 이루었다.

한소간의 주요 수출입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인천조선, 현대미포조선소 등이 추진하는 선박 건조 및 수리, 삼성전자, 금성사 등의 전자플랜트 수출, 삼성물산을 창구로 행해지는 포항제철의 철강제품 수출입과 도입예정인 소련산 농축우라늄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소련측은 한국과의 經濟協力에서 單純交易보다도 우리 기업의 對蘇投資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영업 중인 蘇聯內 韓蘇 合作企業은 진도의 모피판매점과 가공공장 및 현대중합상사와 현대중합목재의 연해주 스페블라야 山林開發뿐이나 그의 많은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소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는 연해주 山林開發 關聯事業인 펄프 및 퍼스널 컴퓨터 생산공장설립, 현대건설의 나호드카지역 무역센터 건설 및 운영사업, 삼성중합건설의 모스크바 스포츠호텔 개보수 및 운영사업, 삼환기업의 사할린지역 산림자원개발, 홍중물산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韓蘇經濟協은 금융부문에서도 이루어져 外換銀行이 1989년 10월 영국 로이드은행이 조성한 對蘇 신디케이트 론(Syndicate Loan)에 1천만불, 1990년 2월 西獨 Hessische Landesbank가 주관한 신디케이트 론에도 1천만 마르크 참여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Aeroflot社간에 체결한 商務協定에 근거하여 1990년 3월부터 주 1회씩 서울-모스크바간을 운항하며 부산-나호드카간 정기 콘테이너선 직항로 조기개설을 위한 협의가 계속되는 중이다.

가장 먼저 韓蘇經濟協이 구체화된 漁業分野의 경우 1989년 이후 소련측과의 교섭으로 소련산 명태

를 船上購買하고 있는데 1989년에는 동원산업, 고려원양, 삼호물산, 남양사, 한성기업과 오양수산이 10만7천톤의 계약물량 중 7만8천톤(2,700만 달러)을 구입했으며 1990년에는 동원산업, 고려원양, 대림수산이 계약량 6만6천톤 중 11월까지 5만8천톤(2,400만 달러)을 선상 구매했다.

通信分野에서도 많은 진전을 보아 1990년 11월에 한소양국간 4개의 直通電話回線이 개설되었고 1990년 12월부터는 양국간 국제특급유선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또한 통신공사는 시베리아횡단 光케이블 사업에의 참여를 추진 중에 있다.

### 3. 韓蘇經濟協의 問題點

韓蘇經濟協의 장애요인은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양국간 經濟協力에 필요한 基盤의 결여와 한국내 對蘇經濟協을 위한 제반여건의 미비 및 소련내 經濟環境의 미성숙이 우리가 소련과 경험을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번째 문제점인 한소양국간 經濟協基盤의 미비는 이번 노대통령의 방소 이후 상당부분 해결되었다. 그러나 아직 정부차원의 항공협정 및 어업협정 등에 합의치 못하였으며 전화, FAX 등 통신상의 어려움도 양국간 경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두번째 장애요인은 對蘇經濟協에 필요한 國內與件의 미성숙에 있다 하겠다. 오랫동안 소련과 단절되어 왔기 때문에 학계, 업계, 정부부처 등 모든 분야에서 소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다. 대소경험에 필요한 구체적 지식은 물론이고 소련에 대한 기초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며 오랜 경험을 지닌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소경험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蘇聯內에 경험에 적합한 環境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소련은 지금 사상 최대의 격동기를 맞고 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와해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는 아직 도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蘇聯經濟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에 들면서 소련경제의 침체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소련 통계당국은 작년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이 전년동기비 각각 2%, 4% 감소하는 등 소련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공식발

표했다. 소련경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물자부족외에도 심각한 재정적자, 통화남발로 인한 과잉루블(Hot Money) 및 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에 설상가상으로 蘇 聯邦을 이루는 15개 공화국이 모두 독립이나 자주권을 선포함으로써 소련은 정치·사회적으로 더욱 깊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어 소련의 당면한 제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련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으며 연방과 공화국간에 경제에 관한 權限區分이 명확치 않으므로 우리 기업이 소련측의 책임있는 파트너를 구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貿易에 있어서는 특히 소련기업의 外換不足이 가장 큰 난관을 이룬다. 작년에 수출의 대폭 감소로 소련의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되어 100억 루블로 급증하였고 현재 소련의 서방에 대한 연체액은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경화외채는 52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對蘇投資의 경우 물론 루블화의 不兌換性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련은 특히 소비재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합작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대부분 내수산업이므로 루블화를 외화로 태환하여 송금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소련 극동지역 및 시베리아의 투자에서는 이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또 자본의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련의 住宅 및 事務室의 부족으로 우리 企業의 진출이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스크바의 경우 주택 및 사무실은 價格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전화, FAX 등 基本施設을 갖추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 4. 韓蘇經協의 展望 및 對應方案

韓蘇兩國間的 經協基盤은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소련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부족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격변기에 처해 있는 소련내의 經協環境이 성숙되기까지

는 더욱 긴 기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경제는 당분간 침체의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술류코프 소련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소련 국민총생산이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서방의 전문가들은 蘇聯經濟가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마술류코프는 금년 소련의 輸出과 輸入이 각각 8.4%, 5.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며 서방에서도 소련의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소련경제의 침체로 무역도 감소하는 상태이므로 양국간의 交易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련이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으로 소련내의 投資環境은 가까운 시일내에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단 금년 1월 서울서 열린 제2차 한소정부대표자 회담에서 15억 달러의 원료 및 소비재 轉貸借款, 5억 달러 자본재 延拂輸出 및 10억 달러의 은행차관을 포함한 총 30억 달러 규모의 經協資金을 3년간에 걸쳐 소련에 공여키로 합의함으로써 이는 우리 기업의 對蘇輸出에 큰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단계에서 政府는 양국간 경험기반조성에 주력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소경협에 필요한 제반 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소련은 체제의 특성상 정부와 민간의 구별이 힘든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대소경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좀 더 효율적인 民官協助體制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소련의 정치·경제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소련정치·경제에 관한 研究體制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 안목에서 소련관련 기초연구에 보다 폭넓은 투자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企業들은 대소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소련의 어려운 현실과 잠재력을 동시에 감안하여 단기적 이익추구를 위한 성급한 자세와 이에 따른 우리 기업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무역이나 소규모 투자 등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은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쌓인 대소경협 경험은 훗날 소련의 경험환경이 보다 성숙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